

# 쿠웨이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면적	18천 km <sup>2</sup>	G D P	1,099억 달러 (2016년)
인구	423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26,005달러 (2016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Kuwait Dinar (KD)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0.30 (2016년 평균)

- 쿠웨이트만 연안에 경상북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쿠웨이트인이 31%에 불과하고 그 외 아시아인과 아랍인이 대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로 소수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덜해 종파갈등이 크지 않은 국가였으나 2015년 IS의 시아파 모스크 테러를 기점으로 종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인구 423만 명, 국토면적 1.8만 km<sup>2</sup>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세계 7위) 및 천연가스(세계 17위)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다만,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0년 이라크의 침입이 있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UN)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 2006년 즉위한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emir)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한 분파 간 갈등이 존재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0.4	0.6	2.1	2.5	-0.3
소비자물가상승률	2.7	2.9	3.2	3.2	4.2
재정수지 / GDP	26.6	8.1	-14.5	-11.3	-7.1

자료: IMF

#### □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1년 10.9%, 2012년 7.9%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 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원유 생산·수출 감소로 인해 2013년 경제성장률이 0.4%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음.
- 원유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16년 경제성장률은 2.5%로 회복되었으나, OPEC 감산합의에 따른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6년 11월 30일 OPEC 회원국은 2017년부터 1일당 120만 배럴을 감산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산유국 감산 이행 감시위원회의 일원인 쿠웨이트는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 13.1만 배럴 감산(일일 산유량 상한선은 270.7만 배럴)에 합의한바 있음.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삭감 영향으로 소폭 상승 전망

- 2015~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연료 등 각종 보조금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2%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추가적인 보조금 삭감이 예정됨에 따라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 쿠웨이트는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전체 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2010년대 들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에 힘입어 2013년까지 GDP 대비 30% 내외의 막대한 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4.5%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연료 보조금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11.3%)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주요 산유국 감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7.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

- 석유 부문이 GDP의 50%, 재정수입의 90%,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함.
- 제조업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수입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

- 한반도 면적의 1/12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6년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하고 있는 OPEC 회원국으로, EIA Oil Market Report(2017.8월호)에 의하면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2017년 7월 270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 아울러, 2016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1.8조 m<sup>3</sup>(세계 17위)로, 연간 150억 m<sup>3</sup> 이상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자원 부국임

□ 'New Kuwait 2035 Strategy'를 통한 장기 국가개발계획 추진

- 쿠웨이트는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4차 경제개발계획(2010/11~2014/15)에서 1,050억 달러 예산으로 도로·항만, 의료·교육 등 경제·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
- 5차 경제개발계획(2015/16~2019/20)은 1,160억 달러 규모로 경제변영 및 경제다변화, 투명한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2017년 1월 장기 국가개발 계획인 'New Kuwait 2035 Strategy'로 통합되었음.
  - 'New Kuwait 2035 Strategy'는 2035년까지 쿠웨이트를 비즈니스와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적자원 개발, 국가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보, 산업다각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음.
- ※ 쿠웨이트는 1990년 이라크 침공 후 두바이에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걸프 지역의 금융·물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Kuwait 2035를 통해 GCC의 금융·물류 허브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당국은 산업다각화 노력과 더불어 석유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 중이며, 석유제품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Al Zour 정유공장 건설(160억 달러), Clean Fuel Project(120억 달러)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세수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쿠웨이트 국제공항, 발전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경제개혁안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증권거래소(KSE)를 민영화한 바 있음.
- KSE 민영화는 쿠웨이트의 첫 공공기관 민영화 사례로, 증권거래소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자국민 실업률

- 423만 명의 인구 중 자국민의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도, 이집트 등 출신의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민은 주로 공공 부문(약 76.8%)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민간 부문(95%)에 종사하고 있음.

- 쿠웨이트의 전체 실업률은 2.07%로 낮은 편이나 쿠웨이트 통계청 기준 자국민의 실업률은 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공공 부문 취업을 원하고 민간 부문 취업을 꺼려하는 젊은층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공공 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당국은 쿠웨이트인의 실업 문제가 부각되자 자국민 고용시 급여지원금 제공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구직자들의 민간 분야 기피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68,667	54,406	3,742	-3,976	6,297
경 상 수 지 / G D P	39.4	33.4	3.3	-3.8	5.3
상 품 수 지	141,520	131,517	85,068	77,076	83,445
수 출	115,858	104,528	54,106	46,255	54,087
수 입	25,662	26,989	30,962	30,821	29,358
외 환 보 유 액	32,184	32,114	28,270	31,907	31,907
총 외 채 잔 액	34,521	39,425	42,471	45,620	48,924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6	24.2	37.2	41.0	38.9
D S R	3.8	2.2	2.9	3.4	3.4

자료: IMF, EIU, OECD.

#### □ 국제유가 소폭 상승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전환 전망

- 쿠웨이트는 2011~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30%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약 50%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3%로 급감하였음.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8%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주요 산유국 감산 등에 따른 국제유가 소폭 상승의 영향으로 GDP 대비 5.3%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에도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2013년 322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6년 319억 달러로 증가하며 월평균수입액 5개월분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쿠웨이트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이 세계 6위 규모(5,240억 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외자산은 풍부한 것으로 추정됨.

□ 오일머니 유입 감소에 따른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오일머니 유입 감소에 따른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지속 상승하여, 2016년 기준 41.0%를 기록하였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기준 3.4%를 기록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임.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고령의 국왕과 후계자로 인한 권력 투쟁으로 정치불안 요소 잠재

- 현 Sabah 국왕이 2006년부터 집권 중이나 현재 88세의 고령으로 지속적인 통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Nawaf 왕세자(Crown Prince)도 80세임.
- 이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자 자리를 놓고 권력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요 경쟁자는 국왕의 두 조카들인 Nasser 왕자(76세, 총리직 역임)와 Ahmad 왕자(54세, 석유장관직 역임)로 알려져 있으나, Ahmad의 스캔들로 인해 Nasser가 차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Ahmad 왕자는 2015년 사법부 모독죄로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 4월 부패혐의로 축구협회 의원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어 Nasser 왕자의 왕세자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음.
- \* 6개월형은 선고 이후 취소되었으나 왕세자 후보자로서 Ahmad 왕자의 평판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행정부·입법부 간 마찰 지속으로 추가적인 국회 해산 가능성

- 저유가 지속에 대응하여 정부는 연료보조금, 임금 삭감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따른 2016년 5월 석유 부문 파업과 함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 간 마찰이 지속되어 왔음.

\*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의회가 존재하는 나라로, 정당 결성은 금지되어 있으나 각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5개 이상 존재함.

- 2016년 10월 Sabah 국왕은 정국 불안과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2016년 11월 총선에서 반 여권 성향 의원들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50석 중 24석)을 차지하였음.

- 주로 진보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로 구성된 야권 인사들이 대규모 재정적자 상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합리화, 세수 증대 조치에 반기를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국회 해산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음.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국왕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現 Sabah 국왕이 즉위한 2006년 이후 쿠웨이트 의회는 전체 임기(4년)를 한 번도 채우지 못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언론 탄압 등 긴장요인 잠재

- 쿠웨이트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 아울러, 2015년 1월 정부 비판적인 일간지 al-Watan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2016년 1월에는 전자범죄법(cyber-crimes law)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인권단체 Freedom House의 '2017 언론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언론자유도는 36점(100점 만점)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언론 자유가 제한된 수준인 '부분적 자유국' (partly free)에 해당함.



□ 수니파 무장단체 IS로 인한 종파갈등 및 테러 위협 상존

- 쿠웨이트는 왕실을 포함해 이슬람 인구의 70%가 수니파이고 시아파는 30%를 차지하며, 시아파가 소수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에 비해 차별이 심하지 않아 종파 간의 갈등이 크지 않은 국가였음.
- 그러나 2015년 6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시아파 모스크 테러를 자행한 후 두 종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거점을 잃은 IS 세력이 쿠웨이트로 발길을 돌리면서 유사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카타르 단교 사태에 대한 중재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22일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을 전달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란과의 외교관계 격하 및 Al-Jazeera 방송국 폐쇄 등

- 쿠웨이트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사태 초기부터 Sabah al-Ahmad 국왕이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모두의 체면을 지키면서 타협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 관계 변화 예상

- 쿠웨이트는 이라크 침공 이후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1991년)한 미국과 강한 유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천명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려할 때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조건적인 군사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외채 수준은 안정적이나 외채구조는 다소 취약

- 2016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각각 40.1%, 3.4%로 안정적 수준임. 다만,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76% 이상을 차지하여 외채 구조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IMF와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 OECD에 의하면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쿠웨이트에 대한 여신 45.2억 달러 중 일부가 연체 중이나 0.1%(6.1백만 달러)로 소액에 불과하며, IMF와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

세계 6위 규모의 국부펀드 보유로 대외지급능력 우수

- 쿠웨이트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이 세계 6위 규모 (5,240억 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우수한 대외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7. 1)	2등급	(2016. 1)
Moody's	Aa2	(2017. 5)	Aa2	(2016. 5)
Fitch	AA	(2016.11)	AA	(2015. 12)

OECD 2등급, 국제신용평가사 AA 수준 유지

- OECD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쿠웨이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2017년 1월 평가회의에서도 2등급을 부여하였음.
- Fitch는 AA등급, Moody's는 Aa2 등급을 각각 부여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쿠웨이트에 대해 투자적격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등급인 AA 수준을 부여하고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9년 6월 11일 (북한과는 2001년 4월 4일 수교)
-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82), 문화협정('83), 무역증진협정('84), 이중과세 방지협약('00), 경제기술협력협정('06), 투자증진협정('07), 형사 사법공조조약('08), 범죄인인도조약('13), 사증면제협정('15)

#### □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쿠웨이트 투자는 현지 프로젝트 수주 및 시공을 위한 현지법인·지점 설립이 일반적이며, 2017년 6월 말(누계기준) 신규법인 수 총 24건, 투자금액 2,58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 교역규모

<표 5>

한·쿠웨이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7	주요 품목
수 출	1,976	925	1,406	686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방기, 선박해양구조물
수 입	16,892	8,973	7,262	5,521	원유, 석유제품, LPG
교역규모	18,868	9,898	8,668	6,20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의 제1위 수출 대상국

-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의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2016년 기준 쿠웨이트 총수출의 15.1%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원유임.

#### □ 한국토지주택공사,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계약 체결

- 쿠웨이트는 2015년 한·쿠웨이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신도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2017년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433억원 규모)을 체결하였음.

- 압둘라 신도시 프로젝트는 수도인 쿠웨이트 시티 서쪽 30km 지점에 주택과 산업·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는 분당의 3배 규모인 64.4km<sup>2</sup>에 달함

## V. 종합 의견

- 쿠웨이트는 세계 7위 규모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세계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2017년 경제성장률은 OPEC 감산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 원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재정·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라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2015년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가 적자(GDP 대비 -14.5%)로 돌아서고 2016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하여(GDP 대비 -3.8%)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소폭 상승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1%까지 개선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회복(GDP 대비 5.3%)할 것으로 전망됨.
- 국왕과 왕세자의 고령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왕실 내부의 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언론 탄압 등 강경 정책과 IS의 테러 위협으로 인해 정치·사회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2016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각각 41.0%, 3.4%로 안정적 수준임. 또한 세계 6위 규모의 풍부한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역 이기성(☎02-6255-5727)

E-mail : ks.lee@koreaexim.go.kr